유족 두번 울린 광주시 묘지관리 횡포

시립묘지 영구사용자들에 관리비 십억대 부당징수
환불 대신 앞으로 발생할 관리비에서 멋대로 차감
도시공사는 조례 개정 이전 사용자 몇명인지 파악도 못해

광주시 도시공사가 제 1시립 망월묘지공원 사용자에게 10억 여원의 관리비를 부당하게 받아놓고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는 더 나아가 채권자인 묘지 사용자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은 채 임의로 향후 발생할 묘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갑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묘지 사용자는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1년 남은 지금이라도 부당 징수된 관리비를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데다, 광주시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관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3일 광주시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3만70기의 사용자에게 수 년 간 부당징수한 관리비 18억7000만 원을 상계처리했다.

이중 1만3834기(6억9000만 원) 사용자에겐 체납액을 뺀 나머지 관리비만 받는 것으로, 나머지 1만6236기(11억7000만 원) 사용자에겐 부당하게 낸 관리비 만큼 향후 발생할 관리비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임의 처리했다.

시 도시공사가 상계처리에 나선 것은 묘지 사용자들에게 부당징수한 관리비를 반환해 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명령 때문이다.

묘지 사용자들은 망월묘지공원이 조성된 지난 1976년부터 광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인 1998년까지 사용료·수수료 등 4500원을 일시에 낸 뒤 당시 광주시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무등묘원으로부터 영구사용권을 받았다.

시는 이듬해 제2시립 공원묘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던 중 망월묘지공원에 대한 관리비를 받겠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고 무등묘원 측은 묘지 관리비를 사용자들로부터 5년에 3만~5만 원씩 징수했다.

관리비를 낸지 10년 만에 영구사용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묘지 사용자는 광주시 등에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한 관리수수료에 영구 관리비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지난 1999년 조례 개정 전에 납부한 관리비 역시 영구관리비로 볼 수 있는 만큼 위탁 법인은 근거 없이 조례에 위반해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2011년 2월 16일 무등묘원으로부터 5억5000만 원 가량의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받는 대신 부당징수된 관리비 등을 떠안기로 한 뒤 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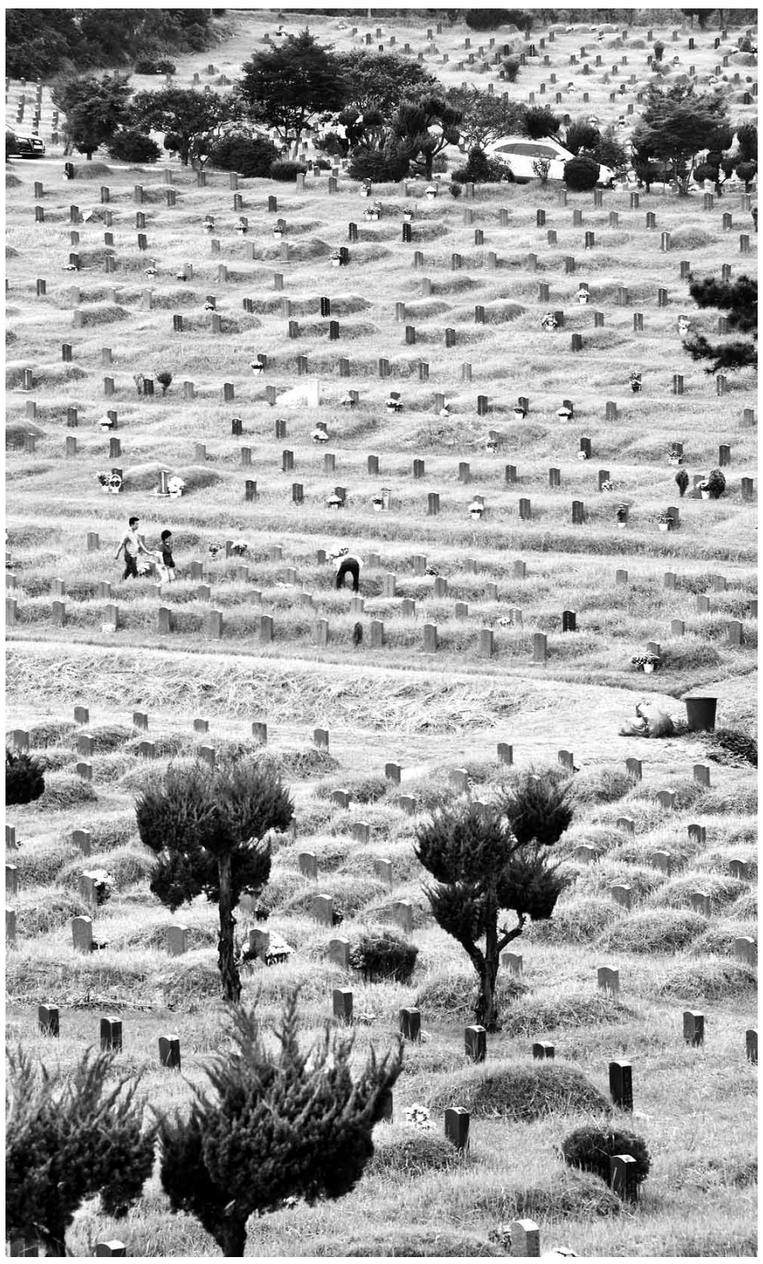
문제는 시가 무등묘원과 부당징수된 관리비를 명확히 처리하지 않은 채 시 도시공사에 떠넘기면서 묘지 사용자들의 관리비 반환이 '광주 도시공사 뜻대로'처리됐다는 점이다.

시가 상계처리해 준 것은 국민권익위의 결정대로 묘지 사용자들이 애초 낸 사용료를 영구관리비로 인정한 셈인데, 이들에게 받은 관리비만큼 환불해 주지 않고 향후 낼 관리비 등에서 차감하겠다는 방식이라 지나친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 묘지 사용자는 영구관리비를 낸 대상자들인 만큼 체납액이 없을 것인데도, 체납액을 뺀 나머지 관리비만 받고 있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다.

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1999년 10월 1일 조례 개정 이전 묘지 사용자가 몇 명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는 이들에게도 관리비를 받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망월묘지공원에서 조상의 묘를 찾은 후손들이 추석(8일) 당일 교통혼잡을 피해 미리 성묘를 하고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부당징수된 관리비 상계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청 미징수 과태료 1000억원

징수팀 구성…특진·포상금까지

광주·전남 경찰청이 부과했지만 징수하지 못한 체납 과태료가 무려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급기야 지방청 및 체납액 100억 이상 경찰서별로 체납 과태료 '기동징수팀'을 구성해 집중 운영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 유공자에 대한 특진·승급·표창,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88만3918건에 달하는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로, 금액만 무려 505억7300만원에 이른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더 많다. 여태껏 부과한 과태료 건수 중 98만7427건이 체납된 형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60억1200만원이나 달한다. 전국 16개 지방청 중 6번째로 많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의 1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 하반기 체납과태료 징수 대책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우선, 지방청 및 체납액 100억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체납 과태료 '기동징수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관련 세금·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번호판자동판독기를 도입하고 징수 유공자에 대한 특진, 표창, 우수경찰서 포상금(6000만원) 지급 등의 '당근'을 내걸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家 형제간 송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형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삼구(69)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주력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천200억원어치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대우건설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을 분리 경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2명 질식사

2일 오후 10시 40분께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고강도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이모(23) 하사와 조모(21) 하사는 청주시내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전모(23) 하사는 3일 오전 의식을 회복한 뒤 대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하사들은 이날 밤 부대 내 모의훈련장에서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을 받던 중 사고를 당했다. 훈련은 포로로 붙잡힌 상황을 가정해 무릎을 꿇고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머리에 두건을 쓰고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소속부대 훈련장에선 24명의 병력이 1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 대비한 포로체험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며 "훈련 당시 물리적 가격이나 압박, 고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에는 10명의 장병이 포로체험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특수전 부대에서 주로 이뤄지는 포로 체험훈련은 전쟁 중 적군에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고문 등에 대비한 것이다.

/연합뉴스

"구명조끼 입고 탈출 좋은 때 기다리며 맥주 마셨나" 추궁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선원들 무책임 놓고 공방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신문 등으로 본격화하면서 침몰 당시 상황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간 공방이 치열하다. 검찰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공판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승객들을 '나 몰라라' 한 선원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무책임함을 밝혀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로 강도 높게 몰아세웠다. 반면 선원들은 증언대에 서 '무능했지만 승객을 일부러 저버리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방어'하는 형국이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면서 재판장이 잠시 열기를 가라앉히는 상황도 연출됐다.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세월호 3등 기관사 이모(여·25)씨와 조기수 이모(56)씨에 대한 검찰·변호인간 피고인 신문으로 채워졌다.

검찰은 전날 이뤄진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이어 이날도 선원 2명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불안함에 떨고 구호조치만 기다리던 승객을 포기하고 제 살길만 찾으려한 선원들의 행동을 들춰내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의 경우 검사가 캔 맥주를 나눠 마신 것과 관련, "구명조끼도 찾아 입었고 외부 갑판 출입문 밖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마셨던 것 아니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 나가 살 줄 알았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다그치자 "이씨는 애초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다른 선원들이 안된다는 취지로 손을 흔들었고 동요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도 있어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해경의 구조 단정에 가장 먼저 탑승한 것에 대해 "여성 먼저 타라고 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승객보다 먼저 살기 위해 그랬던 것 아니냐. 본인이 살기 위해 승객이 어찌 되든 말든 그런 생각 한 것 아니냐"고 강도높게 추궁했다. 이씨는 "그런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울음을 터트렸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했다.

조기수 이씨의 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씨의 무능·무책임·무관심 등 3무(無)의 전형을 확인시키는 한편, 이씨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의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배가 더 침몰하면 탈출하기 쉽다.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아 바다로 뛰어내리면 충격으로 다치거나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진술을 했었다. 검찰은 당시 이씨 진술이 승객 구호조치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며 시간을 보낸 선원들의 무책임함을 확인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씨는 그러나 당시 진술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며 사뭇 다른 취지로 발언했다. 이씨는 선내 방송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나왔다(살았다)"는 말을 내뱉었다가 유가족의 분노를 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전거 훔친 중학생 2명 '10만원 사례'에 혹했다가 '덜미'

쌍나팔

○…길에 잠시 세워둔 고가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간 중학생 2명이 "자전거를 찾아주는 분께 사례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찰의 꾀에 넘어가 제 발로 경찰서행.

○…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박모(14)군 등 2명은 지난달 12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라인아파트 상가 앞에 김모(15)군이 세워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쳐갔다는 것.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서 순간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 피해자 이름으로 페이스 북에 "10만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미끼를 던져 놓은 뒤 순순히 연락해 온 박군 등을 손쉽게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3649	1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타운 9동 14층 1402호 84.72㎡	아파트	120,000,000 120,000,000	
2014타경 7788	1	광산구 운남동 794-3 광주운남7단지주공아파트 702동 1층 106호 49.83㎡	아파트	98,000,000 98,000,000	
2014타경 8606	1	북구 평교로 42, 103동 8층 812호 73.08㎡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14타경 9050	1	광산구 송도로 143, 7층 812호 39.15㎡	아파트	51,000,000 51,000,000	
2014타경 9210	1	광산구 수완동 913 광주수완코오롱하늘채 110동 10층 1002호 103.71㎡	아파트	295,000,000 295,000,000	
2014타경 9562	1	남구 주월동 81-2 해태아파트 103동 7층 702호 84.96㎡	아파트	150,000,000 150,000,000	
2014타경 9692	1	광산구 남동길48번길 15, 101동 13층 1303호 [도산동,도산동서라아파트] 55.015㎡	아파트	76,000,000 76,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3타경 10985	1	남구 진월동 274-5 153㎡	대	58,726,380 58,726,38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274-5 1층81.87㎡ 2층65.39㎡ 부속건물 변소1.2㎡ 제시외 통로 등 14.15㎡[물건번호1:공유자김숙희의지분2분의1전부]	단독주택		
2013타경 33032 2014타경 1841 [병합]	1	나주시 삼도동 992 162㎡	대	102,172,120 102,172,1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및수목포함
		동소 993-2 208㎡	대		
		나주시 죽림길 86-33 83.14㎡ 제시외 주택 등 278.4㎡	단독주택		
		나주시 삼도동 994-4 456㎡	대		
2014타경 8897	1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 434-5 491㎡	대	19,630,880 19,630,880	일괄매각
		곡성군 죽곡면 오죽로 647-42 40.89㎡	단독주택		
2014타경 9876	1	북구 신안동 474-20 117.9㎡	대	81,708,030 81,708,03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서암대로143번길31-3 1층68.09㎡ 2층40.99㎡ 부속변소1.65㎡ 제시외창고등19.6㎡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4타경 7528	1	남구 서문대로749번라길 27, 2층 201호 66.45㎡	다세대	97,000,000 97,000,000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2769	1	장성군 삼서면 소룡리 679-1 2301㎡	전	30,193,100 30,193,100	일괄매각.수목제외.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영농조합법인삼남농산의지분1740분의660전부
		동소 679-2 992㎡	전		
		동소 681-1 2186㎡	전		
		동소 681-7 108㎡[현황도로][물건번호1: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전		
	2	동소 700-1 1349㎡	전	22,258,500 22,258,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장성군 삼서면 금산리 23-8 683㎡	답	10,245,000 10,24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잔디포함매각
	4	동소 657-2 641㎡	전	57,824,200 57,824,2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잔디포함매각
		동소 657-9 196㎡	답		
		동소 657-10 3111㎡	전		
2014타경 7269	1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10-1 1321㎡	전	380,272,000 380,272,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3-2 1068㎡	전		
2014타경 8736	1	나주시 노안면 계림리 23-1 1408㎡[공유자김종환의지분5분의1전부]	전	10,204,560 10,204,56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24-5 745㎡[목록1과지분동일]	답		
		동소 24-6 1171㎡[목록1과지분동일]	답		
		동소 25-1 664㎡[목록1과지분동일]	답		
	2	동소 산10-1 10810㎡[목록1과지분동일][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임야	22,917,200 22,917,2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4타경 10562	1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22-2 1276㎡[공유자전희준의지분1/2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33,814,000 33,814,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4타경 11039	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728 1352㎡	전	22,689,400 22,689,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730 1415㎡	전		
	2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41 1137㎡	전	7,504,200 7,504,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84-2 1124㎡	전	7,418,400 7,418,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989 1269㎡	전	13,824,400 13,824,4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동소 994 1269㎡[개략적도측면적약550㎡][토지대장상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등재]	전		
[기타]					
2014타경 4826	1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 383-1 5993.9㎡[공유자무안석재산업[주]의지분3분의1전부]	공장용지	93,906,000 93,906,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4타경 8361	1	동구 서석동 97-10 3층 302호 94.90㎡	기타	116,000,000 116,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9. 19.[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4. 9. 26.[금]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